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노년시대

## 실버NEWS

###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 “헤어지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 ‘잉꼬부부’ 조경(71)·장남귀(64) 부부 ... 3년전 고성 정착, 고성 홍보 앞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나봐요”

39년의 세월을 함께 지낸 조경(71세)·장남귀씨(64세) 부부는 주위로부터 잉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들 노부부는 “세월은 잡지를 못하지만 사랑만큼은 점점 더 깊어진다”며 “우리는 24시간 내내 붙었다네요, 찰떡이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노부부는 경북 출신으로 대구에서 중매로 결혼을 했다. 투철한 유교가정에서 태어난 부부는 맞선을 보고 13일만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결혼 후 서울로 상경한 부부는

남편이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했었다.

그러던 중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니던 중 설악산에 매료돼 등산을 자주오게 되었고, 이후 고성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성에 정착해 산지가 벌써 3년째다.

“처음엔 몇 년만 살다가 가려고 했죠. 그런데 공기 좋죠, 경치 좋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순수하니 정말이지 모든 것이 좋았어요.”

이들 부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끔 서울에 가도 고성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거린다고 한다.

고성에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병원 시설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부부들이 살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지역이라고 한다. 지인들에게도 고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고성의 장점은 노인시설이 풍부해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점이라고 했다.

민요를 정말 좋아하는 조씨는 얼마 전부터 민요와 장구를 배우고 있다. 아울러 한문 붓글씨도 정식으로 배우고 있다.

이제는 고성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노부부는 “고성도 전통과 현대의 흐름을 적절히 잘 융합이 된다면 잘 사는 고장, 부자가 되



39년의 세월을 함께 지낸 조경·장남귀씨 부부는 잉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하다.

는 고장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지역”이라고 강조한다.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고 싶다는 노부부에게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박승근 기자

## 어르신 낙상 예방관리 교육 실시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노인복지회관 2층 교육실에서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관리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경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경영 교수가 강사로 나와 낙상 예방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박승근 기자

## 어르신 80명 봄나들이 다녀와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난 2일 고성 감리교회와 정우광고, 장수대학 학생회, 김밥천국 간성점, 백순녀 어르신 등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 80명을 모시고 독립기념관과 베어트리파크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박승근 기자

## 우리마을 경로당 / 토성면 천진리

# 가족같은 분위기로 화합 잘되는 경로당



최종명 회장

1970년대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도를 기준으로 해안가를 천진1리 산쪽을 천진2리로 구분하면서 천진리가 나뉘었다.

천진1리에는 120가구에 회원 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쉬었다 갈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쉼터이자 보급자리인 천진 1리 경로당이 어르신들로부터 인기가.

2002년 6월 신축된 경로당을 책임지고 있는 최종명 회장(73세, 사진)은 “우리 경로



토성면 천진리 경로당 전경.

당은 50여명의 회원이 하나가 되어 가족과도 같은 분위기에 화합이 잘되는 경로당”이라고 자랑했다.

천진 1리 경로당 회원들은 매년 2회씩 전통놀이인 윷놀이 대회를 개최해 푸짐한 상품과 선물을 제공하고 회원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고 있다.

또 여름시즌엔 해수욕장 주변을 수시로 회원들과 함께 정

화활동을 펼쳐 지역 환경보존에도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간의 상호계가 조성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모든 경로당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